

제4차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 동·하계대 구성

제4차 남극과학연구단의 남극 조사활동이 시작되었다. 1990년 6월 구성된 동계대는 국내에서 극지적응 훈련을 마치고, 기지 시설 증축과 관련하여 장순근 대장(건설단장 겸임)을 비롯한 관련 부문 담당자 등 5명이 11월 10일 선발대로 파견되었으며, 잔여인원은 하계대와 함께 출국하여 본대와 합류하였다. 한편, 금년도 하계조사는 총21명의 대원이 2차에 걸쳐 시차를 두고 파견되었는 바, 선발대는 김동엽 연구단장을 비롯하여 16명이 임차 조사선 "Southella"(영국 Marr 소속)에 승선, 1990년 12월 2일부터 1991년 1월 19일까지 브랜스필드 해협 및 남극반도 주변의 겔러쉬 해협에서 종합해양조사와 함께 육상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명으로 구성된 후발대는 1991년 1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기지주변 해저지형도 작성, 해빙지질, 기상 및 극지의학 분야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 하계조사에는 각 연구분야 관련학회를 통한 공개 모집공고를 통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선발된 4명의 대학 교수진이 참여하는 연·학공동연구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기, 연안지질, 극지의학, 식물플랑크톤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제4차 동·하계대의 구성인원은 아래와 같다.

- 동계대 : 장순근(대장),
 최문영, 심문보(연구원)
 장익순, 어영상, 김종근(연구기사)
 이상복(의사), 조진호(전자)
 김용탁, 이현덕(발전)
 김성욱, 장세환(기계설비)
 전은운(중장비), 백영식(조리)
 이석원(통역)
- 하계대 : 김동엽(연구단장)

김예동, 김수암, 좌용주,
 정태웅, 남상현, 이방용,
 강영철, 정호성, 윤호일,
 심문보, 강시환, 유홍룡,
 서승남, 권수재, 김종근,
 원진철(이상 해양연구소)
 권병두, 박용안, 조수현
 (이상 서울대), 최중기(인하대)

우리나라,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제21차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가 1990년 7월 23일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개최되었다. 7월 27일까지 진행된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SCAR 정회원국에 가입되어 있는 21개국 전원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내는데 성공, 세계에서 22번째로 SCAR 정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이번 SCAR 대표자 본회의는, 우리나라와 함께 네덜란드, 핀란드, 스페인 등의 SCAR 정회원국 신청을 추가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SCAR 정회원국은 총 25개국이 되었고,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 남극연구를 주도하는 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한편,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앞으로의 남극연구 방향을 지구환경보전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IGBP(국제 지구권 및 생물권 프로그램), GOSEAC에서 개최될 예정인 Antarctic Science Conference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1992년으로 예정된 제22차 회의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고, 차기회장으로 영국의 Laws 박사를, 부회장에는 미국의 Rutherford박사와 아르헨티나의 Rinaladi 박사를 각각 선출하였다. 이때 우리나라도 정회원국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참고로 남극진출과 관련된, 그동안의 중요한 사건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 85년 11월 : 남극과학기지 후보지 답사
- 86년 11월 : 남극조약 가입(세계 33번째)
- 87년 8월 : 한국남극과학위원회(KONCAR) 창립

- 87년 12월 : SCAR 준회원국 가입
- 88년 2월 : 남극과학기지 건설(세계 18번째)
- 89년 5월 : ATCP(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 지위 신청
- 89년 10월 : ATCP(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 지위 획득
- 90년 7월 : SCAR 정회원국 가입(세계 22번째)

세종기지 창고 및 발전동 증축

'90/'91 남극하계 기간을 이용, 세종기지는 창고 및 발전동의 증축 공사와 기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중장비 보관 및 정비 공간의 부족과 각종 생존장비(발전기, 담수화기)용량 부족으로 기지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세종기지는 총 7억원의 예산으로 수행된 이번 공사로 인하여 약 290평의 건물이 증축되고 난방 및 취사설비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시설

능력 및 기지 생활여건이 현저히 보강되었다. 특히 기지건설 이후 최초 수행된 이번 공사는 막대한 물량의 건설자재를 수송·하역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대 업무가 연구소 자체적인 기획 능력으로 성공적 수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극연구 사업 및 기지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보급 지원 능력을 습득케 되었으며, 향후 추진 될 남극대륙 제 2기지 건설 및 운영을 대비한 사전경험을 축적하게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기지 소식

- 1990/6/ 2 - 쥬바니기지 (아르헨티나)대장의 요청으로 TV 수리를 위해 원 진철 (전자담당) 대원을 쥬바니기지에 파견
- 6/11 - 대형 물탱크 청소를 위해 각 건물 단수 (6/7~6/13)
- 식수 공급을 위해 설상차를 이용, 얼음채취
- 6/13 - 약 12톤의 생활용수 확보후 단수 해제
- 팽귄 마을 입구 스키장 야유회 (9명)
- 6/16 - 20시 순간 최대 풍속 46.6m/s 기록
- 6/30 - 대형 물탱크를 세척했으나 여전히 녹과 미세한 진흙이 대량으로 섞여 식수로 불가
- 7/ 5 - 통신대원 교체 (하 준걸→김 동환)
- 7/12 - 본관동 온풍기 고장 (2일간)
- 7/17 - 제헌절 기념행사
- 7/22 - 담수화기에서 생산되는 담수에 다량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식수 사용이 불가
- 7/29 - Zodiac 엔진 수리 및 제설작업

- 8/ 2 - 기온 하강으로 MC가 동결되었음
- 칠레 발전요원 (2명) 기지 방문
- 8/ 6 - 김 정우 연구원 외 1명, 소량의 야채를 가지고 기지에 도착
- 물탱크의 녹으로 빨래도 못할 정도로 수질 악화
- 8/25 - 수량 부족으로 격주로 목욕하고 있고, 화장실은 발전동만 사용하고 있음
- 우루과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초대받았으나 기상악화로 불참
- 9/ 1 - 세종기지 관측이래 최저기온 기록
- 기온강화로 MC, MB 완전동결 (약 30cm)
- 9/ 2 - 부두전방 30m 부근에서 얼음 낚시를 즐겼음 (약 40마리 포획)
- 칠레에서 구입한 식수 전량 소모
- 9/11 - C-130편으로 Ichigawa교수 철수
- 9/15 - 동결되었던 MC가 동풍에 의해 2/3정도가 깨졌음
- 9/19 - 통신기 (전화)고장으로 한국과 교신 불능
- 9/23 - 담수화기 고장으로 생활용수 전면 중단
- 식수는 얼음을 채취하여 사용, 개인용수는 개인적으로 확보
- 10/ 3 - 개천절 및 추석을 즈음하여 기념행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기지대원만 회식을 가졌음
- 10/ 7 - 영상의 기온 (3일간)으로 상당량의 담수를 현대소에 채취하여 생활용수로 사용
- 10/19 - 칠레 C-130 공군기 착륙시 사고
- 10/21 - 사고 비행기 수리차 투입된 C-130을 타고 김 정우 기지 철수
- 10/23 - 인공위성 (전화) 약 12시간 단절되었으나, 안테나를 turning함으로써 송수신 상태 양호
- 10/28 - 조리담당 최 병렬 대원 연장근무 공식 요청
- 10/31 - 제 3 차 월동대 귀국휴가 일정 확정
- 11/ 4 - 건설자재 하역 부지 정리 작업
- 11/20 - 건설단 29명 세종기지 도착
- 11/21 - 건설자재 하역
- 11/28 - 건설자재 하역 완료